

두산중공업지회,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 시작

두산 자본 45세 이상 노동자 명예퇴직 공고 ... 지회, “명퇴 중단, 박씨 일가 사재 털어 대처하라”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 등 일방 구조조정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가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2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사측에 경고했다. 2월 18일 두산중공업은 20일부터 2주 동안 4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겠다고 발표했다.

지회는 “두산 자본은 사람이 미래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듯이 광고하더니, 이면에서 소유주 박씨 일가의 탐욕을 채울 궁리를 하고, 직원을 어떻게 내쫓을 것인지 몰두하고 있었다” 라고

비판했다.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두산중공업이 호황일 때 소유주는 배당금 챙기기에 급급했다. 구조조정을 불러온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조선과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향한 구조조정에 이어 두산중공업도 희망퇴직을 발표했다. 두산중공업은 경남의 토종기업이지만 두산 재벌이 인수하면서 심각한 구조조정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짬뽕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자는 구조조정 의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들의 목을 치려고 한다” 라고 분노했다.

지회는 경영 위기의 해법으로 ▲무능 부실경영 책임 박씨 일가와 경영진 사재 출연 ▲두산그룹 차원의 지원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 등을 제시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지회는 이날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세웠다. 지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해 제보를 받고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0일과 21일 두산중공업 본관 앞에서 규탄 투쟁을 벌인다.

김정태, 11기 대전충북지부장 당선

김남진 수석, 정성훈 사무국장 선출 ... 생존권 위협 분쇄·조직 확대 강화·투쟁 사업장 승리 등 공약



▲ 대전충북지부 김정태 지부장 당선자



▲ 대전충북지부 김남진 수석부지부장 당선자



▲대전충북지부 정성훈 사무국장 당선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11기 지부장-수석 부지부장-사무국장으로 김정태(한온시스템 대전지회)-김남진(일진다이아몬드지회)-정성훈(지부 개별) 후보 조를 선출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 “임원 선거 실시 결과 김정태 후보 조가 찬성 2,596표(득표율 93.4%)을 얻어 당선됐다” 라고 당선인 결정 공고를 했다.

지부 선관위는 재적 조합원 3,887명 중 2,779명(투표율 71.5%)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북지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원 선거를 벌였다. 부지부장 선거는 입후보자가 없어 치르지 못했다.

김정태 후보 조는 ‘원칙과 신뢰로 투쟁을 조직한다’ 라는 으뜸 구호를 내걸고 출마했다. 4대 핵심 과제로 ▲생존권 위협 분쇄 ▲지

부의 조직 확대와 강화 ▲투쟁 사업장 승리 ▲노동법 개악 철폐 투쟁 등을 제시했다. 김정태 지부장 당선자는 대전충북지부 9기와 10기 지부장을 역임했다. 김남진 수석부지부장 당선자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설립 부지회장을 역임했고, 정성훈 사무국장 당선자는 8기와 9기, 10기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을 맡아왔다.